주요개념 : 모유수유의 장점, 산모의 지식수준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의 지식수준 정도에 관한 연구*
- 모유수유 장점과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

박 공 례**·김 정 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유영양은 모아에게 많은 잇점이 있다. 즉 아기측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일차적인 영양원으로 성장발달에 가장 적절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소화기 감염, 호흡기 감염 및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며, 생후 6개월까지 아기에게 가장 훌륭한 영양법이다. 또한 어머니에게 수유 중에는 자궁수축을 촉진하고, 유방암 발생을 감소시키며, 그 외 경제성이나 간편성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애착형성과 긍정적인 모아관계를 증진시키는데도 중요하다(방매륜, 1983 ; 정금희, 1996).

이와 같이 모유수유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도 과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저하된 원인은 TV광고에서 분유의 과대선전,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모자동실이 아닌 모아격리 제도, 의료인들의 무관심, 여성의 취업급증에 따른 모유수유의 어려움 등이 모유수유율을 저하시켰다(김승조, 1990 ; 김혜숙, 1995). 그러나 최근 1990년 중반부터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점차 새롭게 인식되면서 몇몇 병원을 중심으로 모자동실 제도를 실시하는 등 모유수유 확산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첫 아기를 가진 대부분의 어머니들과 모유수유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은 모유수유 뿐만 아니라 아기 돌보기에 대한 모든 면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부족은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김혜숙, 1993).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보)의 깊이와 정확성은 모유수유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은 신념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신념과 태도는 모유수유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Kearney, 1988).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과 이영희(1996)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이 모유수유를 하려는 동기와 직접적인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모유수유 동기와 모유수유 결정시기는 어머니 본인에 의해서 그리고 임신전에 대부분 결정하므로 임신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확대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의 지식과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지식측정 연구들은 있으나, 그 지식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측정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모유수유의 장점과 합리적 근거 즉,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가 높고 낮은지를 파악하여 앞

* 이 논문은 1997년도 조선대학교병설간호전문대학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하였음
** 조선간호대학 교수

으로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내용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산모의 지식수준을 심층화 시키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1) 산모의 모유수유 장점과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본다.
2) 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과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 대한 지식수준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 가설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 수준도 높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 ;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정도이며, 본 연구자가 작성한 19문항의 지식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합리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수준을 말하며, 본 연구자가 작성한 19문항의 지식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점

1)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근거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연구고찰에 한계가 있었다.
2) 본 연구대상자를 일부지역에서만 국한하여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Ⅱ. 문헌 고찰

모유는 인류 사상 최고의 편의 식품이다. 사야하는 일, 만드는 일, 양을 재는 일, 덥히는 일, 소독하는 일 등 어느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고유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깨지지도 더러워지지도 않는 용기에서 언제든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영양을 갖춘 완전 식품이다.

모유는 인간의 젖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점 중의 하나는 모유를 수유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모유는 묽고 흐리게 나오기 시작해서 다 먹어 갈 즈음에서는 점점 희고 진해진다. 이런 생물학적 구조는 아기의 식욕을 조절하나, 분유는 일정하고 변화 없는 맛과 농도로 인해 아기들을 과식과 비만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봉영, 1984). 그리고 모유 중의 메티오닌과 시스틴의 양은 아기의 대사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진한 우유는 메티오닌의 축적을, 또 연한 우유는 시스틴의 결핍을 일으키게 되는것이라 했다. 또한 모유는 우유에 비해 전해질 농도가 아주 낮아, 모유만으로 단백질과 열량의 필수량을 채우고 있는 영아는 체중 1kg당 하루에 약 1밀리등량(等量, mEq)의 나트륨을 섭취하는데 비해 전지우유나 변형되지 않은 분유를 먹는 영아는 4.8밀리등량이나 된다. 영아가 분유를 먹을 때마다 다량의 용질부하(전해질의 비중이 높아 신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을 말함)를 받고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자주 갈증을 느껴 물을 필요로 하여 울게 된다. 그럴 때마다 농축된 우유를 다시 먹이면 초과된 열량섭취로 학령전기(學齡前期)의 비만증(肥滿症)이 된다(손철, 1983).

젖의 성분 또한 수유 중에 자꾸만 변화한다. 즉 수유가 끝날 무렵에는 처음에 비해 지방은 4-5배, 단백질은 1.5배나 더 높아지며 유당의 농도만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젖을 먹는 동안의 이러한 젖 성분의 변화는 수유시기에 관계없이 일어나며 공복감을 해소시켜 주는 한편 갈증도 풀어 준다(손철, 1983).

모유는 첫 6개월 동안에 유아의 건강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며, 특히 유장 단백(whey protein)의 함유량이 모유에는 총단백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유에는 20% 이내이기 때문에, 모유의 소화 흡수율이 높다. 특별히 초유에는 풍부한 면역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위장관의 세균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며, 알러지, 비만증, 대사성 및 다른 질병에 대해 보호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유는 모유보다 더 많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율도 모유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상적인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효소계가 미성숙 상태로 존재해 있을 때에는 더욱 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손철, 1983). 또한 단백질이 모유 100㎖에 1.2gm에 비해 우유 100㎖에 3.3gm이 함유되어 있어(최연순 등, 1994), 인공수유한 아기들은 단백질 축적으로 대사작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모유수유 아기의 장운동과 배설습관은 인공수유 아기와 매우 다르다. 모유는 너무

나 완벽하게 소화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인공수유하는 아기들보다 배설량이 더 적고 수유 후 하루에 1번 내지 3-4일에 한 번 정도 배설하는 아기도 있다. 모유를 먹는 아기들의 대변은 보통 부드럽고 씨같은 것이 있으며 노랗고, 인공수유 아기보다 자주 변을 보게 된다(김혜숙, 1993).

그리고 모유에는 상당량의 효소, 항독소 및 유아의 미숙한 소화기에 적합한 면역력이 함유되어 특정한 질병에서 아기를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 5개월에서 2년까지 배란 시기가 늦추어지나, 모유를 먹이지 않을 경우엔 출산 후 2개월부터 배란이 시작된다. 따라서 모유수유는 천연의 피임효과를 갖어 올 수 있다는 것이다(김혜숙, 1993 : 고명숙 등, 1996 : 이경혜 등, 1997 : 최연순 등, 1994). 출산 후 부인들의 혈중호르몬을 측정한 결과, 모유영양을 실시하지 않은 부인은 프로락틴의 양이 빨리 감소 되었으며 분만 후 사흘째부터는 수유하는 부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또 수유부에서는 산후 90일이 넘도록 프로락틴(値)이 높았으며 성선(性腺)자극호르몬 양은 정상이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트로겐은 낮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프로락틴이 난소 스테로이드의 합성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프로락틴의 분비는 젖꼭지 자극의 기간과 강도에 비례하므로 아기의 요구에 따른 영양이거나 전적인 모유영양인 경우에는 배란일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명숙 등, 1996 ; 손철, 1983).

모유수유는 심리적 면으로 보아도 엄마와 아기의 상호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는 매개체가 된다. 하루에 몇번씩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고동소리를 재확인하고 달콤한 젖을 빨아 먹을 기회를 갖는 일은 아기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으로, 이는 장차 형성될 아기의 성격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김혜숙, 1993 ; 주정일, 1993). 아직 미완성된 아기의 눈이 초점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거리는 30-40cm거리로, 아기를 안고 모유수유할 때 엄마와 아기의 눈이 마주치는 거리로, 모자간의 상호작용도 점점 깊어져 애착형성이 촉진된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유수유를 시작하면 아기와 신체적·감정적으로 가까워져 친밀감이 형성되고 엄마가 아기의 요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적절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며 접촉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기의 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김혜숙, 1993).

손 철(1983)에 의하면, 산후 수유부가 비수유부보다 더 쉽게 임신 전의 체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수유시기에는 축적된 체내지방은 젖 속의 에너지로 그 형태가 바꾸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건강한 수유부의 하루 젖분비량을 850㎖로 가정할 때, 여기에 포함된 600Cal의 에너지 손실이 동시에 있게 되며 음식물로부터 섭취한 에너지의 약 90%가 젖에너지로 된다고 했다. 아기가 빠는 것은 oxytocin의 생성을 자극하고,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켜 자궁근육의 탄력성을 증진시켜 주며(고명숙 등, 1996), 젖 분비시 높은 에너지 요구로 축적된 지방을 사용함으로써 임신전의 모습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이경혜 등, 1997). 김혜숙(1993)도 모유수유를 하면 임신동안 정상 크기의 20배로 증가한 자궁이 임신 전 크기로 더 빨리 수축되기 때문에 엄마의 체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며, 모유수유가 많은 열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다고 해도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영아 후반기나 큰 아동 혹은 유아가 밤에 잘 때 우유병이나 쥬스병을 물고 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 때 우유나 쥬스가 입안에 고이는데 특히 윗니 앞쪽으로 주로 고인다. 발효성이 있는 탄수화물, 특히 당이 충치를 유발한다고 한다. 이런 탄수화물이 입속에 있는 연쇄상 구균과 같은 박테리아와 만나 산을 형성하며 에나멜층을 녹이고 단백질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치아 전체가 상하게 된다. 주로 윗니에 충치가 많고 아랫니에는 덜한데 그 이유는 혀나 우유병 꼭지가 아랫니를 막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조결자 등, 1996).

포유(sucking)란 아기가 어머니의 유방으로부터 젖을 얻어내는 한 과정이다. 포유 때에는 실제로 아기의 혀와 아랫턱의 율동적인 운동에 의해 젖꼭지로부터 혀와 입천장 사이로 젖이 짜내어지는 것이다. 흡철반사는 젖꼭지나 젖이 아기 입 속의 혀와 입천장 사이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일어난다. 이 반사는 턱뼈, 혀, 볼에 의해 완전히 이루어진다. 흡철반사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기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센 입천장으로 잡아당길 수 있어야 하고, 젖꼭지의 돌출은 모유영양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우유병으로 먹일 때에는 혀와 볼근육의 운동이 다르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젖을 빨 때는 볼의 근육이 수축되는 데 반해 고무젖꼭지인 때에는 오히려 이완된다. 볼의 근육이 이완되어 있으므로 입술도 이완되어 어머니의 젖을 빨 때처럼 젖꼭지를 누르는 대신 동그라미 모양을 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생 초기부터 우유병으로 먹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습성만을 익히게 되어 어머니의 젖을 빨 때와 같은 힘이 안 나올 뿐더러 어머니의 젖을

먹고자 하는 욕망마저도 약해지기 때문에 모유 쪽이 우유쪽보다 강한 흡철반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손철, 1983).

모유는 세균감염으로부터 안전하여 날씨가 더워도 부패의 염려가 없으며, 냉동이나 기구의 멸균 등이 필요없어 항상 위생적인 젖을 공급한다. 그리고 상업적 유아식품과 비교하여 월등히 저렴하여 경제적 이익을 준다. 또한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즉시 수유할 수 있으며, 제조해야 할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도 없다(최연순 등, 1994).

개인적으로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해 알고 있고, 모유수유를 계획했던 많은 산모들이 모유수유에 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Gulick(1982)는 수유과정에 대한 지식과 사전의 준비 부족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최순옥(1987)도 17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후 3일이내에 모유수유의 장점과 모유수유 방법, 모유부족을 막는 방법 및 유방맛사지 방법을 교육한 후 산후 1개월과 5개월의 모유수유 빈도를 조사한 결과 분만 1개월과 5개월 모두 실험군의 모유수유 빈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과 이영희(1996)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이 모유수유를 하려는 동기와 직접적인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모유수유 동기와 모유수유 결정시기는 어머니 본인에 의해서 그리고 임신전에 대부분 결정하므로 임신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확대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과 의사들은 대상자의 첫 산전방문과 정규적인 방문시마다 모유수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특히 모유수유를 할 것인지 인공수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 대다수의 여성이 결정하는 시기인 산전시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주어 여성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Lawrence, 1982 ; Reames, 1985).

송규희(1989)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임부들은 초유의 면역성과 정서적 유대감, 영양학적 우수성 등의 지식정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하였으며, 산모는 퇴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모유수유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 산모와 가족구성원 모두 모유수유를 쉽게 중단하기로 결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Chapman, Macet, Keegam, Boru 와 Beronet, 1985 ; Graef와 Broosten, 1988). 또한 방매룬(1983)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모유수유와 긍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어머니가 알고 있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여성인 어머니로서의 돌봄 역할에 대해 적응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분만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요원으로부터 모유를 먹이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은 거의 받지 않았으며 퇴원시에도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말조차 듣지 않았던(이자영, 변수자, 한경자, 1994 ; 정문숙 등, 1993) 것으로 보고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시스템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즉 건강전문가들과 건강전문기관이 산모에게 모두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현존하는 기관의 경우 산후 즉시 또는 그 후에 모유수유를 하기에 불편하고, 산전, 산후시기에 모유수유에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 모두 특별히 모유수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김혜숙, 1995).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효과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임산부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하여 지식정도가 낮은 영역에 중점을 둔 교육내용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 장점과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96년 4월 7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K시와 N시에 소재한 2개 산부인과 개인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한 산후 3일내에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K시에서 60명, N시에서 90명인 총 150명이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본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의뢰 하였으며, 간호사들은 직접 산모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입하게 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회수하여 수합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총 응답자 150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1명을 제외한 119명, 이들 중에서 모유수유 교육에 참석한 산

모 21명을 배제한 98명을 실제 본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을 통해 작성한 모유수유 장점과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내용을 통해 산모들의 지식수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용하였다.

총 54문항으로서 일반적 특성에 관한 6문항, 수유의 특성 10문항, 모유수유 장점에 관한 19문항,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관한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유수유 장점과 합리적 근거에 대한 19문항의 내용별로는 모유의 우수성 6문항(2, 3, 5, 4, 7, 17), 아기에게의 유익함 3문항(6, 8, 10), 어머니에게 유익함과 편리함 4문항(11, 12, 14, 15), 모아애착 증진 1문항(9), 유즙생산 촉진과 원리 5문항(1, 13, 16, 18, 19)으로 구성되었다.

모유수유 장점과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정도는 각각 19문항에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의 두 항목으로 분류하여, '알고 있다(○)' 문항에는 1점, '모르고 있다(×)' 문항에는 0점을 주었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도구의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 측정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0.88,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측정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0.87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적 처리 및 분석은 SA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에 관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모유수유 장점과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정도는 각 항목별로 평균점수와 응답자의 빈도를 보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과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따른 지식수준은 ANOVA로, 대상자의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과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 (N=119)

특 성	구 분	대상자수	%
연 령	25세 이하	29	24.4
	26-30세	59	49.6
	30세 이상	31	26.1
교육정도	고 졸	87	74.4
	대졸이상	30	25.5
직 업	없 음	85	74.4
	있 음	34	28.6
수 입	50-100	35	29.4
	100-150	57	47.9
	150-200	27	22.7
가족형태	핵가족	81	76.5
	대가족	28	23.5
현임신	첫번째	56	47.1
	두번째	40	33.6
	세번째	23	19.3
유두형태	앞으로 돌출	77	64.7
	편 평	34	28.6
	안으로 들어감	8	6.7
계획하고 있는	모유수유	56	50.0
수유방법	인공우유	12	10.7
	혼합수유	44	39.3
수유방법	본 인	59	49.6
결정권	본인과 남편	60	50.4
산모가 아기	모 유	84	70.6
였을때	우 유	6	5.0
받은 수유방법	혼합수유	9	7.6
	잘모름	20	16.8
이번 임신전	해당사항 없음	56	43.2
아기의	모 유	22	20.3(35.8)
수유방법	우 유	15	13.6(23.9)
	혼합수유	26	22.9(40.3)
모유수유	없 음	16	13.7
장점에 대해서	책	51	43,6
들은 경험	방 송	24	20.5
	주위사람	26	22.2
모유수유	없 음	98	82.4
교육에	방송국	5	4.2
참여한 곳	보건소	4	3.4
	가족계획협회	1	0.8
	분유회사	3	2.5

〈표 1〉 계속 (N=119)

특 성	구 분	대상자수	%
	병 원	6	5.0
	기 타	2	1.7
모유수유	해당사항없음	98	77.1
교육의	많이 되었음	16	16.1(70.4)
도움정도	조금되었음	5	6.8(29.6)
교육받을 기회가	참여하겠음	63	52.9
주어지면 참여여부	불 참	56	47.1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은 26~30세가 49.6%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74.4%로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전업주부가 71.4%로 대다수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150만원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횟수는 첫임신이 47.1%로 가장 많았다.

수유에 관한 특성에서 유두형태에서는 돌출(정상)이 64.7%, 편평이나 함몰(비정상)이 35.3%로 나타났다.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은 모유수유가 50.0%, 혼합수유가 39.3%, 인공수유가 10.7%였으며, 수유방법 결정권은 본인과 남편이 50.4%, 본인이 49.6%로 나타났다. 산모가 아기였을 때 받은 수유방법은 모유가 70.6%, 이번 임신전 아기의 수유방법은 혼합수유가 40.3%로 가장 많았다.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정보는 책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수유 교육 참여 여부에서는 참여해 보지 못한 대상자가 82.4%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교육의 참여자 중 모유수유 교육의 도움정도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가 70.4%,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겠다가 52.9%로 나타났다.

2.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 정도〈표 2〉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의 전체 항목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9점의 범위를 가지며,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는 10.28으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지식수준의 점수는 0점에서 1점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지식이 높은 것이다.

19문항 중에서 지식수준이 높은 항목 점수별 5 순위를 살펴보면, "모유수유는 수유에 준비해야 할 번거로움이 없다(0.81점)", "모유수유한 아기들은 인공수유한 아기에 비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0.76점)", "모유수유시에는 임신 때보다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잘 먹어야한다(0.76점)", "모유는 인공유보다 소화가 쉽다(0.75점)", "초유는 짜내지 말고 아기에게 꼭 먹여야 한다(0.75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식수준이 낮은 점수별 5 순위를 살펴보면, "인공수유한 아기들은 모유수유한 아기들 보다 더 뚱뚱한 경향이 있다(0.13점)", "모유수유한 아이들은 손가락을 빠는 경향이 거의 없다(0.24점)", "모유수유한 아기에게는 치아가 썩는 경우가 거의 없다(0.32점)", "엄마 젖을 빠는 아기들은 턱의 성장이 곧고 건강한 치아의 성장을 돕는다(0.34점)", "모유수유시에는 하루에 6-7잔의 수분공급이 적당하다(0.40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지식이 높은 항목을 분석해 보면, 인공수유에 비해 모유수유의 편리성, 유즙생산의 원리, 인공유에 비한 모유성분의 우수성, 초유의 우수성 등에 높은 점수을 얻고 있으며, 반면에 지식이 낮은 항목은 인공유와 모유의 성분비교, 모유수유한 아기의 유익함 즉, 빠는 욕구충족과 턱강화, 유즙생산 원리 등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정도〈표 3〉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의 전체 항목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9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는 8.57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지식수준의 점수는 0점에서 1점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지식이 높은 것이다.

19 문항 중에서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점수별 5 순위까지 살펴보면, "모유를 먹일 경우 특별한 기구나 소독이 필요없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수유가 가능하다(0.78점)",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드러운 엄마의 피부의 접촉에서 오는 느낌이다. 따라서 피부 접촉을 많이하면 아기의 불안을 없애주며 정서적 안정을 주게 된다(0.70점)", "초유에는 면역체가 포함되어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또한 아기의 장에서 태변을 배출시켜 장을 깨끗이 하는 완화제 역할을 한다(0.68점)", "아직 미완성된 아기의 눈이 초점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거리는 30~40cm로, 이는 아기를 안고 모

〈표 2〉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정도 (N=98)

높은 순위 (낮은 순위)	항목	내 용	모르고 있다 N(%)	알고 있다 N(%)	mean	std
1(19)	14	모유수유는 수유에 준비해야 할 번거로움이 없다.	18(18.4)	80(81.6)	0.81	0.38
2(18)	2	모유수유한 아기들은 인공수유한 아이에 비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23(23.5)	75(76.5)	0.76	0.42
3(17)	18	모유수유시에는 임신 때보다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잘 먹어야 한다.	23(23.5)	75(76.5)	0.76	0.42
4(16)	3	모유는 인공유보다 소화가 쉽다.	24(24.5)	74(75.5)	0.75	0.43
5(15)	17	초유는 짜내지 말고 아기에게 꼭 먹여야 한다.	24(24.5)	74(75.5)	0.75	0.43
6(14)	9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모자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깊어져 애착형성이 촉진된다.	29(29.6)	69(70.4)	0.70	0.45
7(13)	10	모유수유는 성인이 된후의 성격과 품위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31(31.6)	67(68.4)	0.68	0.46
8(12)	15	모유수유는 자연스런 피임의 역할을 한다.	33(33.7)	65(66.3)	0.66	0.47
9(11)	5	인공분유가 모유를 모방하려고 해도 결코 정확하게 복제할 수 없다.	44(44.9)	54(55.1)	0.55	0.49
10(10)	11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엄마의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	44(44.9)	54(55.1)	0.55	0.49
11(9)	12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엄마의 체중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7(48.0)	51(52.0)	0.52	0.50
12(8)	16	모유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유방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50(51.0)	48(49.0)	0.48	0.50
13(7)	4	모유수유한 아기들은 거의 설사를 하지 않고 변비도 거의 없다.	53(54.1)	45(45.9)	0.45	0.50
14(6)	13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엄마의 젖은 아기가 원하는 만큼의 젖을 만들어 낸다.	55(56.1)	43(43.9)	0.43	0.49
15(5)	19	모유수유시에는 하루에 6-7잔의 수분공급이 적당하다.	58(59.2)	40(40.8)	0.40	0.49
16(4)	6	엄마 젖을 빠는 아기들은 턱의 성장이 곧고 건강한 치아의 성장을 돕는다.	64(65.3)	34(34.7)	0.34	0.47
17(3)	7	모유수유한 아기에게는 치아가 썩는 경우가 거의 없다.	66(67.3)	32(32.7)	0.32	0.47
18(2)	8	모유수유한 아기들은 엄지 손가락을 빠는 경향이 거의 없다.	74(75.5)	24(24.5)	0.24	0.43
19(1)	1	인공수유한 아기들은 모유수유한 아기들보다 더 뚱뚱한 경향이 있다.	85(86.3)	13(13.3)	0.13	0.34
		총 점 (평 균)			10.28 (0.54)	0.25

유수유를 할 때 엄마와 아기의 눈의 거리와 같다. 따라서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쉽게 알아본다(0.65점)", "모유는 우유보다 아기의 위에서 보다 부드러운 엉긴 덩어리를 형성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더 빠르게 흡수된다(0.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낮은 점수별 5 순위까지 살펴보면, "인공유는 모유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아기가 필요한 단백질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로 아기의 대사작용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0.11점) ", "모유성분의 농도는 일정하여 알러지 반응과 소화불량이 없다(0.22점)", "모유수유 시에는 특히 수분손실이 많으므로 매 수유전에 물, 우유, 쥬스 등을 마실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지나친 섭취는 모유생산을 더디게 한다(0.26점)", "모유수유한 아기들은 대부분의 아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빠는 욕구가 충족되어 손가락을 잘 빨지 않는다(0.27점)", "엄마 젖을 빠는 아기들은 우유병을 통해 우유를 먹는 아기들보다 60배 정도의 에너지를 더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인공분유를 먹는 아기들보다 3배 더 강한 턱 근육을 갖게 된다(0.28점)" 순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대상자들의 높은 지식 영역은 인공수유에 비해 모유수유의 편리성, 모아애착 증진, 초유성분의 우수성 등인 것에 비해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분야는 모유와 인공유의 성분비교, 유즙생산 원리, 모유수유시 아기의 유익성 즉, 빠는 욕구 충족, 턱 근육 강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과의 관계〈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과의 관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에서는 혼합수유가 모유수유나 인공수유보다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3.33$, $p<.05$).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과의 관계〈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과의 관계에서는 계

〈표 3〉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정도 (N=98)

높은 순위 (낮은 순위)	항목	내 용	모르고 있다 N(%)	알고 있다 N(%)	mean	std
1(19)	14-14)	모유를 먹일 경우 특별한 기구나 소독이 필요없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수유가 가능하다.	21(21.4)	77(78.6)	0.78	0.41
2(18)	10-10)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드러운 엄마의 피부와의 접촉에서 오는 느낌이다. 피부접촉을 많이 하면 아기의 불안을 없애주며 정서적 안정을 주게 된다.	29(29.6)	69(70.4)	0.70	0.45
3(17)	17-17)	초유에는 면역체가 포함되어 감염으로 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또한 아기의 장에서 태변을 배출시켜 장을 깨끗이 하는 완화제 역할을 한다.	51(31.6)	67(68.4)	0.68	0.46
4(16)	9-9)	아직 미완성된 아기의 눈이 촛점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거리는 30-40cm로 이는 아기를 안고 모유수유할 때 엄마와 아기의 눈의 거리와 같다. 따라서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쉽게 알아본다.	34(34.7)	64(65.3)	0.65	0.47
5(15)	3-3)	모유는 우유보다 아기의 위에서 보다 부드러운 엉긴 덩어리를 형성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체내에 좀더 빠르게 흡수된다.	39(39.8)	59(60.2)	0.60	0.49
6(14)	15-15)	인공수유한 엄마들이 비교적 한달 반 후에 월경이 시작되는 것과 비교하여 모유수유부는 산후 6-12개월까지 월경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39(39.8)	59(60.2)	0.60	0.49
7(13)	11-11)	모유수유를 하면 자궁수축 홀몬이 분비되어 임신동안 정상크기의 20배로 커진 자궁이 임신 전 크기로 더 빨리 줄어 든다.	44(44.9)	54(55.1)	0.55	0.49
8(12)	12-12)	많은 열량이 모유를 통해 엄마의 체내에서 소모된다.	51(52.0)	47(48.0)	0.47	0.50
9(11)	18-18)	모유로 통해 나가는 열량이 임신시 열량보다 높다.	52(53.1)	46(46.9)	0.46	0.50
10(10)	2-2)	모유는 아기에게 항체와 여러 면역 물질을 전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다.	54(55.1)	44(44.9)	0.44	0.49
11(9)	7-7)	인공수유한 아기는 우유나 쥬스 등을 넣은 우유병 꼭지를 빨면서 잠들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썩게 될 수 있다.	57(58.2)	41(41.8)	0.41	0.49
12(8)	16-16)	유방의 크기는 유방내의 지방조직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이 지방조직의 역할은 유즙생성의 기능 조직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다. 유즙 생성기능은 유선에서 하므로 유방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수유능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58(59.2)	40(40.8)	0.40	0.49
13(7)	13-13)	모유의 생산은 아기가 젖을 많이 빨면 빨수록, 커나가는 만큼의 젖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유처럼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다.	59(60.2)	38(39.8)	0.39	0.49
14(6)	5-5)	모유는 최상의 항체 혼합물을 만들어 내며 우유에 없는 새로운 성분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68(69.4)	30(30.6)	0.30	0.46
15(5)	6-6)	엄마 젖을 빠는 아기들은 우유병을 통해 우유를 먹는 아기들보다 60배 정도의 에너지를 더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인공분유를 먹는 아이보다 3배 더 강한 턱 근육을 갖게 된다.	70(71.4)	28(28.6)	0.28	0.45
16(4)	8-8)	모유수유한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는 욕구가 충족되어 손가락을 잘 빨지 않는다.	71(72.4)	27(27.6)	0.27	0.44
17(3)	19-19)	모유수유시에는 수분 손실이 특히 많으므로 매 수유 전에 물 우유 쥬스 등을 마실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지나친 섭취는 모유생산을 느리게 한다.	72(73.5)	26(26.5)	0.26	0.44
18(2)	4-4)	모유성분의 농도는 일정하여 알려지 반응과 소화불량이 없다.	76(77.6)	22(22.4)	0.22	0.41
19(1)	1-1)	인공수유는 모유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아기가 필요한 단백질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로 아기의 대사작용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87(88.8)	11(11.2)	0.11	0.31
		총 점			8.57	
		(평 균)			(0.44)	0.25

획하고 있는 수유방법, 이번 임신전 아기의 수유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에서는 혼합수유를 택했던 산모가 모유수유나 인공수유를 택했던 산모보다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F=3.96$, $p<.05$), 이번 임신전 아기의 수유방법에서도 혼합수유를 했던 산모가 인공수유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정도와의 관계 (N=98)

특 성	구 분	대상자수	평 균	표준편차	F
연 령	25세 이하	25	0.47	0.28	1.47
	26-30	48	0.55	0.22	
	30세이상	25	0.59	0.26	
교육정도	고 졸	76	0.54	0.24	0.00
	대졸이상	22	0.54	0.27	
직 업	없 음	71	0.54	0.24	0.17
	있 음	27	0.56	0.27	
수 입	50-100	25	0.53	0.27	0.14
	100-150	48	0.54	0.23	
	150-200	25	0.56	0.26	
가족형태	핵가족	78	0.53	0.25	0.58
	대가족	20	0.58	0.22	
현임신 횟수	첫번째	43	0.49	0.24	1.70
	두번째	35	0.59	0.23	
	세번째	20	0.56	0.28	
계획하고 있는	모유수유	44	0.53	0.23	0.33*
수유방법	인공우유	17	0.38	0.26	
	혼합수유	37	0.60	0.24	
수유방법	본인	53	0.54	0.26	0.02
결정권	본인과 남편	45	0.54	0.23	
이번 임신전	해당사항 없음	43	0.46	0.24	4.43
아기의 수유방법	모 유	20	0.57	0.24	
	우 유	15	0.51	0.23	
	혼합수유	20	0.68	0.22	
모유수유	없 음	16	0.56	0.23	1.96
장점에 대해서	책	41	0.60	0.27	
들은 경험	방 송	18	0.45	0.24	
	주위사람	23	0.49	0.18	

*p<.05

나 모유수유를 했던 산모보다 합리적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3.16, p<.05).

6.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과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과의 상관관계〈표 6〉

본 연구의 가설인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근거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을 것이다"는 지지 되었다(r=.86, p<.001).

따라서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이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 산모들의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정도는 최고 19점에 10.28점이었으며,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근거에 대한 지식정도는 최고 19점에 8.57점으로 나타난 바,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과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모들이 모유수유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정보를 얻을 만한 출처를 알지 못하며, 그나마 책자를 보거나 방송, 친구와 같은 주위사람에게서 어렴풋한 정보만을 얻은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산모들은 단순히 보편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내용만 알게 될 뿐이지 깊은 지식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에게서 얻은 지식습득은 본 연구에서 9.2%로, 매우 낮은 율로 조사되었다. 분만 후 산모들이 의료인들에게서 얻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습득 및 권장 정도는 낮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김화숙, 1991 ; 최상순 등, 1996 ; 박옥희, 권인수,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지식수준정도와의 관계

(N=98)

특 성	구 분	대상자수	평 균	표준편차	F
연 령	25세 이하	25	0.36	0.23	2.70
	26-30	48	0.45	0.24	
	30세이상	25	0.52	0.27	
교육정도	고 졸	76	0.42	0.23	2.04
	대졸이상	22	0.51	0.29	
직 업	없 음	71	0.44	0.23	0.15
	있 음	27	0.46	0.29	
수 입	50-100	25	0.41	0.24	0.64
	100-150	48	0.44	0.24	
	150-200	25	0.49	0.26	
가족형태	핵가족	78	0.45	0.26	0.01
	대가족	20	0.44	0.21	
현임신 횟수	첫번째	43	0.41	0.23	0.85
	두번째	35	0.46	0.26	
	세번째	20	0.49	0.26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	모유수유	44	0.43	0.27	3.96*
	인공우유	17	0.29	0.27	
	혼합수유	37	0.51	0.26	
수유방법 결정권	본인	53	0.44	0.26	0.08
	본인과 남편	45	0.45	0.23	
이번 임신전 아기의 수유방법	해당사항 없음	43	0.38	0.23	3.16*
	모 유	20	0.43	0.26	
	우 유	15	0.43	0.22	
	혼합수유	20	0.58	0.24	
모유수유 장점에 대해서 들은 경험	없 음	16	0.45	0.24	1.61
	책	41	0.50	0.24	
	방 송	18	0.35	0.25	
	주위사람	23	0.42	0.24	

*p<.05

〈표 6〉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과 모유수유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과의 상관관계

(N=98)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r=.85669***

***p<.001

1991) 결과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 문항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는 수유시에 준비해야 할 번거로움이 없다"가 가장 높은 점수항목이며, 가장 낮은 점수항목은 "인공수유한 아기들은 모유수유한 아기들보다 더 뚱뚱한 경향이 있다"였다.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근거에서도 모유수유 장점과 같은 문항인 "모유를 먹일 경우 특별한 기구나 소독이 필요 없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수유가 가능하다"가 가장 높은 점수항목인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항목은 "인공유는 모유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기가 필요한 단백질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섭취하여 대사작용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였다.

이상의 결과를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김혜숙(1995)의 의료요원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그리고 최영희, 김혜숙과 박현경(1997)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에서 가장 높은 정답율을 나타낸 항목은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보다 아기에게 좋다" 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항목은 김혜숙(1995)의 "모유는 각 유방에서 15~20개의 유동(sinuses)에서

〈표 7〉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 측정도구의 신뢰도

Items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1	0.202	0.877
2	0.408	0.872
3	0.431	0.872
4	0.451	0.871
5	0.417	0.872
6	0.451	0.871
7	0.374	0.873
8	0.399	0.872
9	0.638	0.865
10	0.646	0.864
11	0.613	0.865
12	0.528	0.868
13	0.415	0.872
14	0.580	0.868
15	0.535	0.868
16	0.253	0.878
17	0.575	0.867
18	0.609	0.866
19	0.457	0.871

〈표 8〉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측정도구의 신뢰도

Items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1	0.143	0.901
2	0.522	0.895
3	0.310	0.899
4	0.245	0.897
5	0.451	0.894
6	0.451	0.894
7	0.423	0.898
8	0.547	0.894
9	0.394	0.895
10	0.615	0.891
11	0.663	0.891
12	0.535	0.891
13	0.505	0.893
14	0.496	0.896
15	0.475	0.896
16	0.577	0.892
17	0.490	0.893
18	0.524	0.892
19	0.500	0.890

생산된다"(레지던트), "짜낸 젖은 멸균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소아과 레지던트), "모유수유를 하다가 인공수유를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엄마들의 가장 큰 이유는 직장으로의 복귀 때문이다"(간호사)였으며, 최영희 등(1997)에서는 "가장 많이 모유수유를 그만 두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가 가장 지식수준이 낮은 항목으로 본 연구와 비교되는 바이다.

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과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정도와의 관계에서는,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에서 혼합수유가,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과 이번 임신전 아기의 수유방법에서 각각 혼합수유가 유의한 차이를 냈는데, 이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산모들의 인식이 높아져 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모유수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현재의 사회구조상 직장여성이나 또한 자주 외출을 해야하는 주부들에게는 편의상 모유와 우유를 혼합하는 수유방법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가설인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 수준도 높을 것이다'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와 3에서처럼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이 높은 항목이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은 항목으로 거의 일관되어 나타났으나, 표 2의 2항목인 '모유수유 아기들은 인공수유한 아기에 비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식이 높은 2위인데 비해 표 3에서의 2-2) 항목은 10위에 있으며, 18항목인 '모유수유시에는 임신 때보다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잘 먹어야 한다' 도표 2에서는 3위이나 표 3에서의 18-18) 항목은 9 위에 있고, 표 2의 10항목인 '모유수유는 성인이 된후의 성격과 품위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7위인데 비해 표 3에서의 10-10) 항목은 2위에 있다. 지식수준이 낮은 항목 중에서 표 2에서 7항목인 '모유수유한 아기에게는 치아가 썩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3위인데 비해 표 3의 7-7) 항목은 9위에 있으며, 표 2에서 4항목인 '모유수유한 아기들은 거의 설사를 하지 않고 변비도 거의 없다'는 7위인데 비해 표 3에서의 4-4) 항목은 2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차이가 난 항목 중에서 2, 3, 4항목은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지식내용인데 비해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인 2-2), 3-3), 4-4) 항목 즉, 모유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보아지며, 그리고 표 2의 7항목과 표 3의 7-7)항목, 표 2의 10항

목과 표 3의 10-10)항목은 항목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산모의 인식 부족에서 온 결과로 보아진다.

앞의 결과에서와 같이 산모들의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은 결코 높지 않으며,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은 더 낮았고, 특히 모유와 인공유의 성분비교, 유즙생산원리, 모유수유한 아기의 빠는 욕구충족과 턱 강화에 대한 영역에 취약점이 있었던 바,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정도가 낮은 영역에 비중을 둔 모유수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의 지식수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996년 4월 7일에서 5월 10일에 걸쳐 산후 3일내에 있는 산모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AS를 이용하여 Frequenc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모유수유 장점과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의 점수 범위는 0~19점이다. 모유수유 장점의 지식수준 점수는 10.28점,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점수는 8.57점로 지식수준이 둘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가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 ($F=3.33$, $p<.05$)에서 혼합수유가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와의 지식수준 관계를 살펴보면, 계획하고 있는 수유방법($F=3.96$, $p<.05$)과 이번임신전 아기의 수유방법($F=3.16$, $p<.05$)에서 각각 혼합수유가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모유수유 장점과 모유수유 장점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식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86$, $p<.001$).

2.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모유수유 장점과 합리적근거에 대한 지식수준에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임산부의 지식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제도적인 장치 아래에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명숙, 김혜자, 박공례, 박난준, 심미정, 오현이, 인숙희, 이영숙, 이은숙, 장인옥, 한혜실 (1996). 모성간호학 상권. 서울: 현문사.

김봉영 (1984). 엄마젖이 좋아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승조 (1990). 모유수유 장애 요인 및 대책. 모유 권장 대책 토론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회 모임.

김화숙 (1991).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혜숙 (1993). 모유의 신비. 서울: 에드텍.

김혜숙 (1995). 의료요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 정도의 비교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 (2), 243-253.

박옥희, 권인수 (1991). 산후경과별 모유수유 실태. 모자간호학회지, 창간호.

방매륜 (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손 철 (1983). 엄마젖이 최고야. 서울: 전파과학사.

송규희 (1989). 서울시내 일부 병원에 내원한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경혜, 박영주, 변수자, 유은광, 이미라, 이영숙, 이혜경, 정은순, 조옥순, 최의순, 한혜실 (1997). 여성건강 간호학(상). 서울: 현문사.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모유수유 관련 요인 및 어머니의 교육 요구. 간호과학, 6.

정금희 (1996). 모유수유 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정문숙, 김미예, 고효정, 김신정, 박명희, 신영희, 송인숙, 이수연, 이인혜, 정귀애, 정승은 (1993).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정도. 모자간

호학회지, 3(2), 187-196.
조결자, 송지호, 유일영, 박은숙, 박인숙, 김미원, 김희순, 신희선 (1996). 아동간호학1. 서울: 현문사.
주정일 (1993). 태교 · 출산의 지혜. 서울: 샘터.
최상순, 이은희, 윤경희, 심복경, 최남희 (1996).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22-233.
최순옥 (1987).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대구.
최연순, 조희숙, 장춘자, 이남희, 장순복, 최양자, 박영숙(1994). 모성간호학(1). 서울: 수문사.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이영희 (1996). 모유수유부의 모유수유 실천에 따른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 35(5).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1997). 모유수유를 실천한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 정도. 대한간호, 36(2).
Chapman, J., Macet, M., Keegam, M., Boru, P., & Beronet, S. (1985). Concerns of breast-feeding mothers from birth to 40 months. Nursing Research, 34, 374-377.
Graef, P., & Brooten, D. (1988). Postpartum concerns of breast-feeding mothers. Jorunal Nurse-Midwifery, 33, 62-66.
Gulick, E. E. (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feeding. MCN, 7(6), 370-375.
Kearney, M. H. (1988). Identifying psychosocial obstacles to breastfeeding success. JOGNN, 14 (2), 114-118.
Lawrence, R. A. (1982). Practices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among medical professionals. Pediatrics, 70, 912-920.
Reames, E. S. (1985). Opinions of physicians and hospitals of current breast-feeding recommendations. JADA, 85, 79-80.

-Abstract-

Key concept : Breastfeeding's benifit, Mother's knowlege level

A Study on Mother's Knowledge Level of Breastfeeding's Benifit

- Breastfeeding's Benifit and Rationale of Breastfeeding's Benifit -

Park, gong Rye · Kim, Jung Hy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ther's knowledge level of breastfeeding' benifit and rationale of breastfeeding's benifit.

The sujects were 98 mothers who within 3 days after childbirth in 2 obstetric clinic in K city and N city from April 7 to May 10, 1996.

Data were collected by a qustionaire developed by researchers.

This study was statis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

1. Mean score of mother's knowledge level of breastfeeding's benifit and rationale of breastfeeding's benifit was ranged from 0~19. Mean score of breastfeeding's benifit was 10.28. Mean score of rationale of breastfeeding's benifit was 8.57. Mean score of breastfeeding's benifit and rationale of breastfeeding's benifit was not high.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eeding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other's knowledge level of breastfeeding's benifit as follows : mixed feeding method in planning feeding method($F=3.33$, $p<.05$).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eeding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mother's knowledge level of rationale of breastfeeding's benifit as follows ; mixed feeding method in planning method($F=3.96$, $p<.05$), mixed feeding method in previous feeding method($F=3.16$, $p<.05$).
4.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knowledge of breastfeeding's benifit and rationale of breastfeeding's benif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r=.86$, $p<.001$).

* Chosun Nursing College